

2/14(월) 민수기 22-25장 발람 : 무너진 진짜 이유

내부의 혼돈, 죽음의 사건에도 불구하고
적들은 이스라엘의 진군에 바짝 긴장했습니다.
적들은 백성의 <숫자>를 보고 근심하며 번민했지만,
진짜 무서운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(22:3, 5-6).
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<하나님>입니다(24:8).

약속된 땅으로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죄로 얼룩졌지만,
여전히 방향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.
하나님은 그날만큼의 일정들을 착오 없이 완수해 나가십니다(21:1-3, 10-35).
<낮선 입>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키십니다(22-24장).

모압 왕 발락은 왕들의 패전 소식을 들었습니다(21장).
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번민하며 브올의 아들 발람을 찾습니다.
참 선지자인지, 거짓 선지자인지 많은 견해가 있지만(22:7-8),
분명한 것은 <발람>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.
사악한 꾀를 내고 돈을 써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.

발락은 자리를 옮겨가며 저주하게 합니다(22:41, 23:14, 23:28).
희생 제물을 차리고 신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(23:1-2, 14, 29-30).
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(23:12, 26, 24:12-13).
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와 복을 더욱 선명히 보이십니다.
(23:24, 24:5-7, 24:17)

정작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죄였습니다(25장).
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일하시지만,
백성들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으로 너무 쉽게 주님을 떠납니다(25:1-2).
옛 세대는 브올 사건을 끝으로 모두 퇴장하게 됩니다(25:9).

나는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?

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, 돕지 않으셔서 무너지니까?

나 스스로의 죄와 욕망 때문에 무너지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민수기 22-25장